보 도 자 료

배포 일시	2020. 06. 30. (화)	담당자	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원 02-6348-1318 010-5703-1318

서울시 영등포구 http://www.teen-up.com/

전 화	02-6348-1318	전 송	02-2690-1255	teen-up.com@hanmail.net

국가인권위원회의 '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'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!

십대여성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'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'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에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한다.

논평

국가인권위원회(이하 인권위)는 2020. 6. 30.(화) 21대 국회에 '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'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.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존엄과 자유, 평등의 실현을 위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, 이 법률의 제정을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한 인권위의 의견에 동의하고, 환영한다.

모든 인간은 여러 관계 망 속에서 누구든지 소수자가 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외모 중심의 남성중심 사회에서는 키가 큰 여성과 키가 작은 남성이 이유없이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, 각종 기회에서 배제되기도 한다.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미국, 유럽 등 백인 주류사회에서의 아시아 및 유색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, 더 나아가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기까지, 차별은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며, 공존하는 모든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,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기본권은 다수결을 통한 합의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. 그것은 70년 전 선언되었던 UN 인권선언처럼 오직 선언되고, 공표되어 다 같이 지켜야 할 원칙인 것이

다.

정부와 국회는 이번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, 하루빨리 평등법을 제정하라. <끝>